"비브리오패혈증 9월까지 조심해요"

신안군 보건소

신안군 보건소가 서남해 연안 해수·하수, 갯벌 등지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원인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하절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군 보건소는 해안 지역으로 이뤄진 지역적인 특성상 9월까지는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관광지인 흑산 홍도지역 어패류 취급업소, 위생업소 등 130개소에 대해 현지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균검사 및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식중독, 수인성 감염병, 보건위생교육 등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홍석조 보건소장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평소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어패류는 가급적 영하 5도 이하로 저온저장 또는 60도 이상으로 가열해 충분히 익혀 먹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30초 동안 씻은 후 섭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sslee@

대종상 단편 영화제, 고흥을 달궜다

본상과 첫 분리…1만5000명 몰려 성황
최우수작품상에 최지연 감독작 '여자'

지난 14~18일 5일간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일원에서 열린 '제49회 고흥 대종상 단편 영화제'가 성황을 이뤘다. 대종상 단편영화제는 그동안 대종상 본상에서 시상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행사를 따로 열어 고흥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고흥군은 "영화제에 인기 연예인·영화출품 참가자를 포함해 지역주민·관광객 등 1만 5000여명의 인파가 몰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동안 레드카펫과 축하공연, 군민노래자랑, 컨퍼런스, 흥행영화 및 단편영화 상영,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4일 개막식에서는 고흥에서 처음 열리는 영화제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레드카펫을 함께 밟은 박병종 고흥군수, 박금래 군의회 의장과 고흥 대종상단편영화제 추진위원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세균 국회의원 등 인사들의 개회선언 및 축사에 이어 유명 가수와 걸그룹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16일에는 매년 열리는 대종상 단편영화제의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17일 저녁에 열린 고흥 대종상 단편영화제 오디션에서는 단편영화 출품 참가자들과 예비 영화인들이 끼와 열정의 무대를 펼쳤다.

대종상 단편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인 대상은 최지연 감독의 '여자'가 차지했으며, 우수작품상에는 배가선 감독의 '그녀와의 하룻밤'이 뽑혔다.

수상작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반부 ▲감독상 최지연 감독(여자) ▲각본상 윤순표 감독(좋은날) ▲남자연기자상 백승현(좋은날) ▲여자연기자상 이진희(모르는 사람) ▲촬영상 김재홍(좋은날) ▲편집상 안광섭(그녀와의 하룻밤) ▲음악상 손은정(기로) ▲기획상 이강선(공중부양) ▲기술상 박지만(모르는 사람)

◇대학·청소년부 ▲감독상 임연정(화분) ▲각본상 오규민(염소의 눈물) ▲남자연기자상 강영구(염소의 눈물) ▲여자연기자상 김나연(화분) ▲촬영상 김종선(그녀) ▲편집상 정병진(화분) ▲음악상 유희천(화분) ▲기획상 정시영(모델) ▲기술상 유진훈(탈)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순천 정원박람회장에 뽀로로 정원

내년 2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에 뽀로로, 앵그리 버드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유명 캐릭터를 주제로 한 정원이 조성된다.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7일 조직위 사무실에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캐릭터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캐릭터 어린이 놀이 정원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제이콘컴퍼니(대표 유주영) 등이 참여해 조성하게 될 캐릭터 어린이 놀이 정원은 5000㎡ 규모로 2013년 2월까지 조성하게 된다.

캐릭터 어린이 놀이 정원은 뽀로로, 디보, 토마스와 친구들, 앵그리 버드 등 어린이 TV 프로그램 및 온라인 게임속의 유명 캐릭터들을 정원 박람회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정원 박람회장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재미와 교육이란 2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일반부두로 전환해야"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전략 학술 포럼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5~17일 국내외 항만물류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 항만전략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15일부터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이태우 대만 카이난대 교수, 하동우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국장, 블라드 카진스키 미국 워싱턴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왕진 홍콩대 교수, 송동욱 영국 헤리어트와트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 100여 명이 참석했다.

17일에는 국내 60여 명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학술 세션과 광양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패널 토론과 광양항 투자유치 설명회, 물류전시회, 대학(원)생 물류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특히 광양항 활성화 세션에서는 광양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1단계 1, 2번 선석을 시급히 일반부두로 전환해야 타 권역으로 전환되는 화물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유발화물이 창출된다"며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화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국토해양부 사무관은 "지난 2월 컨테이너 부두 1단계 1, 2번 선석의 일반부두 기능전환과 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며, 여유선석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상조 사장은 "정부가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경쟁을 통한 운영 유도보다 국내 항만들의 특성에 맞는 항만으로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 '거문도 쑥' 지리적표시제 등록

해풍과 청정하고 온난한 기후 조건에서 자라는 여수 '거문도 쑥'이 지리적표시제 85호로 등록돼 지역 대표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여수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충석 시장을 비롯해 배상현 여수농협 조합장, 남주현 거문도 해풍쑥영농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맹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지리적 표시는 지역 특산물을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등록해 해당 지명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제도다. 이에 따라 거문도 쑥은 하나의 고유상품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거문도 쑥은 염기가 섞인 해풍과 해무의 영향으로 쑥의 질을 좋게 해 전국 최고 품질의 식용 쑥으로 알려져 수도권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억 원의 매출을 올려 농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남주현 거문도해풍쑥 영농조합장은 "거문도 쑥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친환경적 재배와 품질향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도서민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 특산물인 돌산갓(제67호)과 돌산갓김치(제68호)는 지난 2010년에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등록됐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편백나무 숲에서 시원한 족욕을…

최근 보성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계곡물에서 족욕(足浴)을 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편백나무숲의 시원한 계곡물에서 녹차 아이스크림과 함께 즐기는 족욕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보성군 제공〉

진도 무형문화재 전수관 오늘 개관 기념 공연

진도군 기·예능 보유자 교육의 전당인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완공됐다.

진도군은 21일 진도읍 동외리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준공식과 함께 개관기념 공연을 연다.

군은 총 공사비 52억원을 투입, 부지 3300㎡·연건평 2039㎡에 관리동, 교육동, 강당, 식당, 게스트룸 등을 갖춘 지상 2층의 규모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했다. 전수관은 기·예능 보유자와 전승자들의 전수 교육활동과 전통문화 예술의 보급기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섬사랑 바다학교' 체험기회 확대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광주 소년원 MOU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박용규)와 광주 소년원은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미래세대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립공원 섬사랑 바다학교'의 체험기회를 확대했다.

'국립공원 섬사랑 바다학교'는 국립공원의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시스템이다.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가 각급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방과 후 학습형'과 신안군 도초도 국립공원 생태학교, 시목해변과 숲에서 주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부사무소는 올 8월 현재 목포 청호초등학교 등 목포시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할구역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총 20개 기관 717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과맞춤형 이론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해 일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말 체험형 프로그램은 지난 5월부터 환경성 질환 아동 110명과 자은중학교 등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광주소년원과의 MOU 체결에 따라 하반기에도 선택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섬사랑 바다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각 학교 및 지역단체는 서부사무소 탐방·시설과(061-284-9116)로 문의하면 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